

## 2009 새로운 태양 새로운 도전



기축년 새해가 불신과 낙망, 실의를 몰아내고 온 세상을 빨강계 물들이며 하늘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시 선원동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온몸에 신년 첫 햇살을 받아들이는 크레인처럼, 올해는 움츠러들었던 가슴을 추스르고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해 본다. 한 해 동안 쌓였던 가슴속 응어리를 털어내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놓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올해 허리띠 꼭 졸라매자”

광주일보·리서치 앤 리서치 '주민 의식조사'  
 10명 중 8명 “경제 매우 나빠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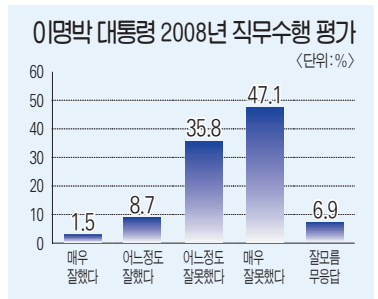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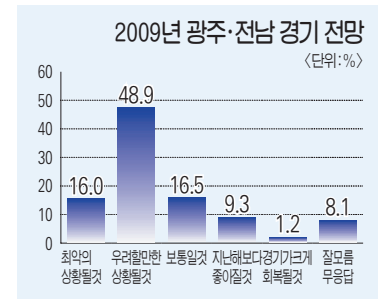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민 중 절반이 1년 전보다 생활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새해경기가 지난해 말처럼 어렵거나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미국발 금융위기와 취약한 인프라 등 외부적 요인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83%가 '잘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이명박 정부가 호남을 배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6% 정도가 '공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78%가 '현 정부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결과는 광주일보가 기축년 새해를 앞두고 '신년 주민의식조사'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광주·전남지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23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생활형편이 1년 전과 비교해 더 좋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인 50.7%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46.3%는 '비슷하다'고 답했다.

2009년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16.0%, '우려할만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48.9% 등으로,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절반을



훨씬 웃도는 64.9%를 차지했다.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40.7%가 '미국발 금융위기와 고유가·고환율', 27.2%가 '취약한 지역 인프라'라고 답변하는 등 응답자의 67.9%가 외부적 요인을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잘못했다'는 답변이 35.8%, '매우 잘못했다'가 47.1%를 기록, 전체 응답자의 82.9%가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가 호남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30.8%가 '어느정도 공감한다', 35.7%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하는 등 절반을 훨씬 넘는 66.5%가 '공감한다'고 답변해 호남 배제에 대한 피해의식이 광주·전남지역민 사이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77.9%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답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새 희망 담아 ... 힘내라! 지역경제

2009 광주일보 테마 “경제 회생 다시 뵙시다”

국가부도설에서부터 가정붕괴설에 이르기까지 좌절만 안겨왔던 2008년이 넘어갔다. 줄부도에 시달린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들마저 앞다뒀 감산과 장기휴무, 고용유지 조치에 들어갔던 2008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다. <관련기사 14·15면> 올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곤두박질치면서 실업자가 크게 늘고,

서민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 음미여 여기저기서 들려 온다. 그러나 더 이상 좌절하거나 주저할 여유가 없다. 어려움은 가슴에 묻어두고, 이제 다시 뛰어야 한다. 2003년 이후 흑자행진을 거듭해온 광주의 수출기록을 이어가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신발끈을 동여매야 한다. 그러자면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통해 희망을 빚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업주는 일방적인 구조조정보다

경영혁신으로, 근로자는 무리한 요구보다 한발짝의 양보로 서로에게 다가 가면 고통은 절반이 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진지한 상생을 논하고, 금융기관은 기업회생을 위해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은 어려운 살림을 쪼개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나서야 희망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다.

올해야말로 주식회사 광주·전남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때다. 지역민 모두가 책임있는 주주로 나서 내 고장 제품을 먼저 구매하고 외지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들은 광주·전남의 희망 그 자체다.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줘야 지역경제 또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신년특집 지면 안내

광주·전남 주민 의식조사	4·5면	지역농업 활로를 찾는다	16면
광주·전남 비전 2009	6면	다문화 모범 가정	17면
이소연 박사의 도전과 희망	7면	2009 세계 천문의 해	19면
새해 지구촌 기상도	8면	그곳에 꼭 가보고 싶다	21면
상생의 지역 품도	12면	'희망의 대륙' 남극	22면
창작의 신실을 가다	13면	신춘문에 당선작	24·25면
희망 2009 다시 뵙시다	14·15면	신지에 인터뷰	27면

우리 아이 키? 성장클리닉  
 최연환의민원 374-1075-6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光州日報 임직원 일동

2009년 새해 護賀新年  
 경제야 우뚝서라!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2009년 새해 특집 '경제야 우뚝서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기업과 시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려내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다들 믿고 기다려주세요! 새해 첫날 - 광주광역시 행사 540-**

광주일보  
 www.kwangju.co.kr